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Event Archives

임지훈(Lim, Ji-hoon)** · 오효정(Oh, Hyo-jung)***

김수정(Kim, Soojung)****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선행연구
2.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 연구
 - 1) 공동체 아카이브
 - 2)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
3. 사건 아카이브
 - 1) 사건 아카이브의 정의
 - 2)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
 - 3)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사항
4.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6M3D7A1912703).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cyrano1315@naver.com)(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ohj@jbn.ac.kr)(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kimssoojung@jbn.ac.kr)(교신저자).
■ 투고일 : 2017년 12월 28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월 3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월 17일

〈초록〉

본 연구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건 아카이브의 정의를 내린 후,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 연구방법인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과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건 아카이브는 인물, 공간, 시간으로 구성되며, 다른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시간적 요소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을 축으로 나머지 요소를 접목한 팽이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세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사건 아카이브의 구축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둘째, 사건 아카이브의 세 요소인 인물, 공간, 시간에 따라 기록 수집 및 관리 영역을 제안하였다. 셋째, 오픈 아카이브로 발전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 아카이브,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 사건 아카이브, 팽이 모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definition of “event archive,” which collects and manages records that focus on a specific event, in order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to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As such, this study defines “event archive” and then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it with community archives and locality archives. An event archive consists of person, spatiality, and temporality. As it puts an emphasis on temporality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a spiral model, which grafts person and spatiality onto a time axis. Moreover, this study suggests three consider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n event archive. First, it presents different construction

methods for different types of event archives depending on the time an event occurred. Second, it suggests records collection and management areas considering the three components of an event archive—person, spatiality, and temporality. Third, it supports a digital archive for an event archive to become an open archive.

Keywords : digital archives, private records archiving, event archives, spiral model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일련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전 세계로 급속하게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3일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발생 직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뉴스 속보와 트윗(Tweet)을 통해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파리 테러사건에 대한 내용이 사건 발생지역을 벗어나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행정 기록물과 달리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기록물관리에서 사용하던 수집, 분류, 보존, 활용정책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을 공공기록물의 테두리 안으로 수용하면서 민간 기록물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내 고장 역사찾기’ 사업

이나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광장 기록수집·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통해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사업과 함께 국내 학계 또한 민간 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국가 기록물에서 민간 기록물로, 국가 아카이브에서 일상 아카이브로, 공공 기관의 행정 기록에서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으로 기록관리의 연구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곽건홍 2011, 24-31). 현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기록물 수집과 관련한 연구는 출처 중심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 다루지 못하는 공동체와 지역의 기록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이 있다(김지현 2014, 106).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을 생산, 보관하고 활용하는 행위주체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하며,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행위 주체에 더하여 이들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한다(손동유, 이경준 2013, 167-168; 윤은하 2012, 21-30; 설문원 2011, 209).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더해 사건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특정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수집이나 기록화방안을 다루는 연구는 수행된 적이 있으나 사건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이론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사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는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은 향후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사건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다. 즉, 사건은 뜻밖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문철학 연구에 있어 사건은 시물라크르

(Simulacre)라는 개념으로 통한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감성적 언표, 이미지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Plato의 이데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데아가 불변하는 진리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인데 비해, 시뮬라크르는 매 순간 변하는 유동적인 존재이며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시뮬라크르는 순간적인 이미지, 환영을 나타내는 용어다(이정우 2011, 59-71). 사건이 시뮬라크르 개념으로 통하는 이유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 한 순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여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Deleuze는 Plato과 달리 이데아가 아닌 시뮬라크르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2014년 세월호 사건’, 국제적으로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2015년 파리 테러’ 등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킨 일을 사건이라 부를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사건을 ‘한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일컫는다(이건 1994, 141). 예를 들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성수대교’의 물리적인 상태가 변화한 사건이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을 기점으로 대통령의 직권이 정지됨으로써 ‘대통령’의 사회적인 상태가 변화한 사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건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뜻밖의 일로 이를 전후하여 어떠한 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정의한다.

사건의 유형은 발생 주체와 발생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발생 주체로 사건을 분류하면 자연이 일으킨 자연재난과 사람이 일으킨 사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발생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역사적 연표에 족적을 남길만한 사건인 ‘역사적 사건’과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건인 ‘동시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사건 발생지역에 한정되어 사건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가 좁고 전파속도가 느린데 비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동시대 사건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퍼진다는 특징이 있다.

사건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은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사건 관련 기록물이며, Deleuze는 이를 두고서 ‘언표가 사건을 표현한다고 하였다(이정우 2011, 83-84).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물체적인 사건을 표현하여 사건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전달해주는 것이 사건 아카이브가 가지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건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는가? 또한 사건 아카이브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기록학계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사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의 방법론인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을 살펴본 후, 각 연구의 특성을 도출하여 사건 아카이브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사건 아카이브를 정의하고 사건 아카이브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3) 선행 연구

사건과 관련된 기록화 방안에 대한 기록학계의 연구는 2010년 이후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 1>과 <표 2>는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사건 기록에 관한 선행연구를 구분한 것이다.

<표 1> 사건 관련 기록화 방안 연구 - 역사적 사건

사건 종류	사건	저자	논문명	연도	연구내용
역사적	민간인학살 (한국전쟁)	권명숙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	2007	수집, 구술
역사적	민간인학살 (한국전쟁)	이주영	구술기록을 통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역사화	2011	수집, 구술, 기억
역사적	민간인학살 (5·18)	강주연 외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 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2015	활용, 교육프로그램

역사적	민간인학살 (노근리)	김유승 외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2015	수집, 개념화
역사적	민간인학살 (노근리)	윤은하 외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2016	관리, 기억

〈표 2〉 사건 관련 기록화 방안 연구 - 동시대 사건

사건종류	사건	저자	논문명	연도	연구내용
동시대 (국내)	세월호	김익한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자	2014	수집(기록화), 관리
동시대 (국내)	세월호	심성보	4·16 세월호 참사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수집(기록화)
동시대 (국내)	세월호	안병우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2015	수집(기록화)
동시대 (국내)	세월호	김진성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사회적 역할	2015	관리
동시대 (국내)	밀양송전탑	설문원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2014	수집(기록화)
동시대 (국내)	밀양송전탑	설문원 외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2014	관리, 활용
동시대 (국내)	밀양송전탑	김영 외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2015	수집(기록화), 관리(맥락화)
동시대 (국내)	대통령탄핵	오명진	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 탄핵 사건 기록	2012	관리(맥락화)
동시대 (국외)	월가 점령운동	이현정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2014	수집(기록화), 개념화
동시대 (국외, 자연)	일본대지진	이미영	재해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2009	수집, 관리

먼저 〈표 1〉과 같이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노근리 사건이나 제주 4·3사건과 같은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기록화 방안 관련 논문이 있다. 권명숙(2007)과 이주영(2011)은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에 의해 영덕군 창수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구술기록을 도입하여 기록화를 통해 소외된 기억의 역사화를 제안하였다. 강주연 외(2015)는 5·18 민주화 운동 사건에서 발생한 기록물

을 보관하고 있는 세 기관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PBL 모형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하나의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기록관이 보유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기록물 활용에 있어 사건 즉, 주제별 접근이 훨씬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김유승, 류반디(2015)와 윤은하, 김유승(2016)은 노근리 사건을 기록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철학적, 방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연구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건의 양상을 범주화하여 기록물을 분류하였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화 방안의 논문에서 주목할 사항은 기존의 방법으로 획득하지 못한 기억을 수집하는 방안과 이미 수집된 기록을 관리 및 활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기억을 수집하여 기록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식기억 및 공식기록에 대항하는 대항기억을 기록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이주영 2011, 80-84).

두 번째로 <표 2>와 같이 동시대 사건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00년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건을 다루고 있다. 김익한(2014)과 심성보(2014)는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수집 및 생산될 수많은 기록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기록의 소멸을 미리 방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안병우(2015)와 김진성(2015)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관련 기록이 어떠한 과정으로 수집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관리 및 활용되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설문원(2014), 설문원 외(2014), 김영 외(2015)의 논문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건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이를 수집·분류·기술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접근법이 아닌 내러티브, 구술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김영 외(2015)의 연구는 구술기록을 사용하여 사건의 맥락정보를 파악하였다는 점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외 오명진(2012)의 연구는 물리적 상태 변화가 아닌 사회적 상태 변화 사건인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공적활동으로 생산된 기록이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기록 생산 및 수집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

하였다. 동시대 사건 중 국외 사건으로 월가 점령운동과 일본 대지진에 관한 기록화 연구가 있다. 이현정(2014)은 기록학 실천주의와 관련된 국외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월가 점령운동의 기록화 사례를 들었다. 이미영(2009)은 사람이 아닌 자연이 일으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일본의 기록관리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국내 재난사건 관련 기록의 생산 및 수집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동시대 사건 기록화 방안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수집 및 백락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기록이 생성 중이기 때문에 미처 생산되지 않은 자료들을 기록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기록관리를 중요시하는 역사적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 연구의 종류와 특성

민간 기록물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는 공동체 정체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산된 기록을 수집·관리하여 정체성을 보존하며,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연구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이 생산한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두 관점은 기록물의 수집 관리에 있어 기존의 공공기록물 중심의 아카이브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1) 공동체 아카이브

(1)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의와 특징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도 학계에서 많은 관점이 존재한다. 공동

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토대로 기록학계에 적용 가능한 정의를 내린 윤은하에 따르면, 공동체는 '다양한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속감과 협조로 형성·유지되는 집단'이다(윤은하 2012, 21-30). 특히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공유하는 '기억 공동체'를 언급하여 공동체가 생산하는 기록 및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기억 공동체는 지배계급의 공식 기억에 대항하는 대항기억을 보유한 공동체로 인식이 된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기억하며, 이후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틀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기억 공동체는 단순히 지배 계급의 단일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사건과 기억, 의미, 배경 간 복잡한 과정 속에 나오는 다양한 맥락을 새롭게 제시하기 원한다. 즉, 그들의 의미 체계 속에서 새로운 집합적 문화를 창출하고, 공통된 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집단 정체성'을 가진다.

기억 공동체가 기억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는데, 이를 '기록 공동체'라 부른다. 국내에서 주로 연구되는 기록 공동체로 '마을 공동체'가 있다.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마을 정체성을 밝히고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는 각 마을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문화 풍습, 특이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면서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한다(손동유, 이경준 2013, 167-170; 김화경 2012, 146-147). 이처럼 공동체 아카이브는 지배계층이 기존에 형성해 축적해 온 '단일 공식 기억'과 다른 다양한 공동체의 기억을 표면에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여 기억의 단일성을 부정하고 다양한 기억을 후대에 남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관리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향식(top-down)인 북미지역의 모델과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를 결합한 민·관 협치의 영국식 거버넌스 모델이 있다. 북미지역의 하향식 모델은 국가기록기관을 중심으로 각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관리하며, 영국식 거버넌스 모델은 공동체 관련 기록물을 계속 수집해온 주류 문화기관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록물 평가 및 정리와 기술에 있어 기록 출처이자 주체로 활동한 공동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이를 반영한다. 물론 거버넌스 모델은 주체 선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공통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 방식에 있어 기록 생산자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내 마을 아카이브는 영국에서 진행된 자생적 공동체 아카이브와 비슷하여 다양성은 높으나, 파편적이며 상대적인 한계성이 있어 주류 기관과 협동하는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이경래 2013, 227-229, 240-248, 258-262; 이경래, 이광석 2013, 23-37).

(2)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기능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기록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기록, 특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의 기억을 보존하거나 소수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는 지배계층이 설정한 공식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대중의 기억이나 기록을 보존하기보다 특정 계층이나 권력층의 기록만 보존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시작되었다. 윤은하는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와 기록학 원칙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공동체 아카이브로 이동했다고 설명한다(윤은하 2011, 87-90). 즉, 기록관리 방식이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이며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아래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기록관리 참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기

록학 원칙이 보편적 거대 담론에서 개별적이며 다원화된 방식으로 변화하여 일괄적인 행정방식보다 각 사회와 문화 내에서 발생한 기록관리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소수 공동체의 정체성 보존 기능이다.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가 세부화 되면서 소수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여성, 인종, 성적 소수자, 노동자, 이민자 등 사회의 소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사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나 공동체 내·외부에서 소수 공동체가 생성하는 기록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수 공동체의 기록에 아키비스트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별 대상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 공동체가 단순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던 것을 증명하는 증거적 가치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의 틈을 메워 후대 역사가로 하여금 당대 사회의 다양성을 조망할 수 있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은하 2012, 31-35).

2)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

(1)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의 정의와 특징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Cox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에서 파생된 전략으로, '문화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역사적,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개개인이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지리적 영역'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전략이다(Cox 1996, 9). 기본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개인이나 조직, 사회의 활동과 역사를 재구성하도록 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집·생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기록 컬렉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문원은 로컬리티 기록화라는 용어를 사용

한 이유로 로컬리티를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 정체성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설문원 2011, 209). 또한, 박규택은 로컬리티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변화되는 것’이라 하였다(박규택 2009, 161). 이처럼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지역성(Locality)이다.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로컬리티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요소는 행위 주체의 활동(주체)과 물리적·가상적 공간(객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 주체는 사람, 조직과 같은 물리적 단일 개체·집합에서 사회 제도와 같은 논리적 집합에 이르는 범주를 지니는 것으로 활동을 통해 행위 주체가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뜻한다. 공간은 행위 주체 활동의 토대가 되는 필요조건으로 규모, 장소, 네트워크, 위치성, 이동성의 다섯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장소성에 비해 해당 공간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성은 성, 인종, 계층 등 다양한 사회적 차이성을 드러내는 속성이며, 행위 주체의 활동에 따라 상호 연결되는 속성인 네트워크와 이동성은 공간의 정보와 경험이 같은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전달할 수 있어 대상 공간이 크게 확장되었다(Leitner, Sheppard & Szianto 2008, 159-165).

일반적으로 인문지리학에서 표현하는 지역성은 보통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나 로컬리티는 여기에 다른 차원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추가한다. 박규택과 이상률은 지역을 한정된 물리 공간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자연적 현상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지속되고 갈등으로 변화되는 유기체로 정의한다(박규택, 이상률 1999, 16). 이를 토대로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의 대상을 분류하면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단순히 주체의 활동이 객체에 남기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변화상 및 맥락 또한 기록한다. 예컨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을 통해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은 공간 자체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가 가지고 있는 사회·자연적 현상, 즉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도 함께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설문원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의 범주에 공간이나 장소의 물리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친 각종 사진뿐만 아니라 장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설문원 2011, 210).

(2)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의 주요기능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필연적으로 집단기억과 대항기억으로 연결된다.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중앙 정부의 단방향 소통과정에 따른 기존의 기록화 방법을 거부하고 집단 또는 사회가 공통으로 겪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경험을 집단적으로 보존하고 기억한다. 이를 통해 집단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쌍방향 소통과정을 이루게 되어 집단은 자신들의 대항기억을 기록물로 남기려고 끊임 없이 노력함으로써 망각의 역사로 남지 않으려고 한다(설문원 2011, 210; Cook 2004, 16).

집단이 남긴 기록물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의 역할을 설명함에 있어 Josias는 아카이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망라하도록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로 작용하는 집단 기억에 기여한 자 또는 집단 기억에 접근하는 상징적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Josias 2011, 104). 이와 유사하게 설문원도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을 통한 아카이브의 역할을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배제된 집단이 거주하는 장소를 축으로 스스로 기록을 수집·생산하여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이를 통해 집단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설문원 2011, 211).

최근 로컬리티에 시간 개념을 부여한 로컬시간개념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 지역구성원 개개인의 시간이 단순히 개인적인 리듬이나 생활주기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구성원을 둘러싼 지역의 상황 변화나 충격적인 사건의 등장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지역구성원이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구성된 논리적인 지역 개념이 물리적인 지역 개념과 섞여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이 존재하듯, 각 단위의 지역에 작동하는 로컬시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의 특성은 반복적이면서 순환적으로 이 주기를 무너뜨리는 다른 요소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이 때문에 지역구성원은 익숙한 한 주기를 살면서 해당 지역의 가치인 로컬리티를 구성하게 된다(차철욱 2015, 6-7).

또한 공간적 로컬리티에 한정된 기존의 이론을 벗어나 ‘문화적 지역성(Cultural Localities)’을 포함시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부를 둔 회사의 지역 지부는 해당 지역의 로컬리티로 아카이빙 되어야 하나, 전국적 연대 및 타 회사와 교류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간적 로컬리티 측면에서만 접근할 경우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및 조직에 관한 아카이빙으로 확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문화적 지역성’이다. 단순히 사물과 지역으로서 기록물을 아카이빙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아카이빙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와 아마추어 또는 외부인과 내부인의 협업작업을 필요로 하며 이웃 학문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이영남 2014, 268).

이상을 요약하면,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집단이 가지는 대항기억을 기록물로 남겨 국가기록기관이 미처 수집하지 못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로컬리티는 특정 로컬시간을 공유하는 지역민과 결합하여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데, 물리적 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역성을 고려하게 될 경우

매우 넓은 범위를 망라하게 된다.

3. 사건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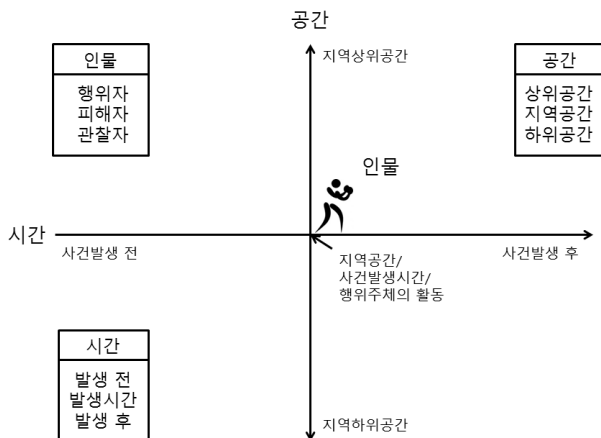
1) 사건 아카이브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건 아카이브란 사건을 유발한 행위자와 피해를 받은 피해자, 사건을 관망하는 관찰자가 각각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동한 결과로 생성된 기록물을 의미한다.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흐름,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유형에 따라 그 맥락이 변하므로 아키비스트는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물을 수집·분류·평가·활용하여야 한다.

사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요소는 인물, 공간, 시간이다. 사회학자인 Giddens의 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따르면 사회구조와 인간의 행위를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구조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된다(Giddens 1984; 박규택, 이상률 1999, 18). 이처럼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은 사건의 인물, 공간, 시간의 3요소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사건이 발생한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술과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은 사건 아카이브의 3요소를 도식화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객관적 시간의 수평적 흐름에 따라 수직적 공간에 위치한 인물의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이 도식에서 사건 아카이브의 3요소는 각각 3요소로 구성되어 총 9요소로 나눌 수 있다. 즉, 인물 요소는 행위자와 피해자, 관찰자로, 공간 요소는 상위공간과 지역공간, 하위공간으로, 시간 요소는 사건발생 전, 사건발생, 사건발생 후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사건 아카이브의 3요소



사건 아카이브의 3요소 중 첫 번째, 인물에 해당하는 범주는 사건을 유발한 행위자와 사건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 사건을 관찰하는 관찰자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특히 관찰자는 행위자와 피해자와 달리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경우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대상을 넓게 설정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자를 분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관찰한 사람부터 사건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수많은 기록을 분류하여 재정리하는 사람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공간에 따라 분류하면 사건이 발생한 공간 주변인물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 사건을 접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4·19 혁명을 예로 들면, 혁명 당시 혁명 주체인 학생, 교수, 시민과 혁명 객체인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 그리고 혁명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긴 국내·외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의 활약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4·19 혁명을 알게 되어 이를 자신의 일기나 저서에 기록한 전 세계의 사람, 나아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러한 자료를 모아 분류, 재정리하여 책

으로 출판한 역사가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인물에 해당하는 행위 주체는 무엇이며, 사건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체는 무엇인가? 최근 캐나다 국립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에서 토탈 아카이브즈(Total Archives)의 부흥방법으로 Whole-of-Society를 논의하고 있다. 이 접근법의 요소로 사회적 담론(Societal Discourses)과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가 있다. LAC는 이 중 사회적 행위자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즉, 단체, 법인, 구조, 장소, 사건 등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주체를 모두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를 기록화 대상으로 삼고 있다(박지애, 임진희 2015, 67-70). 이처럼 사건을 유발하는 행위자의 행동이 필연적으로 타인과 집단, 나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주체는 사건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대상을 인간을 포함해 비인간 중 실제적으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와 자연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인물이라는 요소가 자연재난이나 환경오염과 같이 행위자와 피해자가 인간이 아닌 자연일 때도 동일하게 통칭한다.

사건 아카이브의 두 번째 요소로 공간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간은 지역으로 통용되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지역공간의 형성과 변화는 지역 공간, 지역공간과 지역하위공간(가정, 이웃)간의 관계, 지역공간과 지역상위공간(국가, 세계)간의 관계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4·19 혁명으로 공간요소를 살펴보면, 지역하위공간은 4·19 혁명의 단초가 된 김주열 학생의 가정 및 학교, 1960년 4월 19일에 서울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효자동 입구, 의사당 앞 광장처럼 국지적 장소에 해당한다. 지역공간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마산 등 혁명이 발발한 지역을 의미하며, 대개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같이 사건의 이름에 붙는 경우가 많다. 지역상위공간은 대한민국과 외신기자를 파견한 해외국가 등 거시적 장소에 해당한다. 이 세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Trubowitz는

1890년대, 1930년대, 1980년대의 미국 대외정책을 비교하면서 지역의 경제 발전 불균등성이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과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히면서 지역하위개념인 지역성과 지역상위개념인 국가정책 사이의 연결고리를 공간 간 관계로 해석하였다(Trubowitz 1998, 5-11; 박규택, 이상률 1999, 22). 특히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이동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은 고정성과 이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물이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한 장소의 경험과 정보가 다른 장소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 방법이 물리적인 때보다 온라인 공간과 같이 가상적일 수록 빠른 이동성을 보인다(Leitner, Sheppard & Sziarto 2008, 165).

또한 사건은 발생한 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박규택은 이를 사회·역사 구성주의와 활동에 근거한 로컬의 공간성으로 설명한다(박규택 2009, 166). 로컬의 공간성은 행위 주체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로컬의 공간성이 로컬 내·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유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발발한 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가 가지게 되는 공간성은 전라남도청 소재지라는 물리적인 광주의 속성을 벗어나 민주화의 산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인식이 되었다. 이처럼 사건을 유발하는 인물은 공간이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공간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인물이 일으킨 사건 또한 공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사건 아카이브의 세 번째 요소는 시간이다. 물론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아카이브도 공동체 혹은 지역 역사에 관한 기록을 아카이빙 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사건 아카이브의 경우에 특히 시간의 개념이 중요시된다. Bergson에서 시작되어 Deleuze에게서 완성된 20세기의 '현대 형이상학'은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공간이나 결정론보다 시간, 우연, 창조, 불연속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 사유의 역사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두 관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간과 시간이다. 공간을 강조하는 관점은 합리주의적이며 법칙성을 띤 필연적 결정론의 입장을 주장하는데 반해 시간을 강조하는 관점은 탈합리주의적이며 차이와 변화, 생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를 가지게 된 이유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사건 또한 한번 발생하여 영속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일련의 작은 사건들이 여러 층위에 걸쳐 누층적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건과 시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이정우 2011, 15-16, 23-46). 또한, 채오병은 사건과 사건사의 인식론을 시간성(Temporality)과 사건의 연쇄성(Sequence), 우연성(Contingency)의 세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사건에 있어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였다(채오병 2009, 159-164). Sewell은 역사사회학 연구에서 목적론적 시간성, 실험적 시간성, 다사건적 시간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성을 언급하였다. 이 중 다사건적 시간성은 구체적 시간의 맥락에 선후관계로 분포되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건들의 힘에 관한 성격이다. 즉, 사건은 폐쇄적·분절적이 아니라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서로 긴밀히 연관된 개방적 성격을 지닌다(Sewell 1996, 245-280; 채오병 2009, 160-162). 이렇듯 시간은 일련의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맥락이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시간의 개념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관념과 함께 인물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주관적 관념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사건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관념을 사용해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컨대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사건 이름에 절대적인 기준 시간을 함께 표기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대표사건과의 선후관계를 구분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건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주관적 시간관념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이론은 우주론적 시간론과 인간 의식 중심의 시간론으로 나뉜다. 우주론적 시간론은 근·현대 이전 철학의 대세를 형성하는 이론으로 시간이 인간의 주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입장이다. 인간 의식 중심의 시간론은 현대 Bergson

의 시간론 이후 Heidegger, Whitehead, Deleuze로 이어오는 이론으로 시간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주관, 특히 의식에 관련된 것으로 믿는 입장이다(이정우 2011, 384-386). 로컬시간 용어를 사용한 차철욱의 연구는 로컬리티 성격의 형성에 반복적이며 순환적인 시간의 주기성을 부여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보다 주관적인 시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차철욱 2015, 6-7). 또한 박규택과 이상률은 시간의 개념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닌,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 형성, 변화된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박규택, 이상률 1999, 22). 다시 말해, 사건의 시간은 객관적인 기준 시간을 축으로 하되, 다양한 인물과 공간의 주관적인 시간이 사건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1980년 5월 18일은 매 주마다 오는 일요일과 다를 바 없었겠지만 광주에 사는 시민에게 이 날은 공포와 투쟁이 섞인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이처럼 시간은 절대적 관념과 상대적 관념이 공존하는 복잡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변화된다. 사건과 관련된 시간은 크게 사건 발생 전, 사건 발생, 사건 발생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고유의 속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사건의 특성을 구별지을 수 있다. 4·19 혁명을 예로 들면 사건 발생 전 시간은 혁명이 발발하기 전 발생한 2·28 대구 학생 데모나 3·15 선거, 마산 봉기 등 4·19 혁명이 발발할 수 있도록 도화선 역할을 한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 사건 발생 시간은 1960년 4월 19일 발발한 대규모 학생 데모부터 계엄령이 선포되어 대학교수 및 시민이 데모에 참여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여 4·19 혁명이 종결된 일련의 사건 전체를 포괄한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은 대통령 하야 이후 제 2공화국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19 혁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건을 포함한다. 이를 공간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공간에 전파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과 공간에 영

향을 주게 되었다.

사건 아카이브에 있어 시간의 흐름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아키비스트는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관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생산된 기록은 사건 종결 후 아키비스트가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여 수집·선별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 관련 기록물의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수집과 병행하여 선별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관찰자가 생산한 기록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사건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평가하여 수집·선별해야 한다. 사건 종료 후 아키비스트는 전 세계에서 생산된 기록을 파악해 수집해야 하며, 1차 기록물로 파생된 2차 기록물의 수집 여부 등 수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사건 발생 시기에 따른 시간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사건에 관한 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록화 작업보다는 기록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지만, 동시대 사건은 이미 수집된 기록물의 관리와 병행하여 아직 기록화 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기록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정리하면, 사건 아카이브는 사건을 유발한 행위자의 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인물과 넓은 공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 흐름에 따라 관련 대상을 넓게 선정하여 기록을 수집·선별·관리한다. 이는 기존 현대 기록학의 출처중심에서 벗어나 주제 중심으로 회귀하는 방법론이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된 기록의 위치를 파악하여 수집·관리함으로써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기관의 기능 또는 문서의 생산 출처를 통해 하나의 사건을 기록화하는 출처주의 방식은 사건 아카이브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사건의 성격과 관련 요소에 따라 세부사항에서 출처주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 아카이브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사건 아카이브의 특성

민간 기록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세 가지 방법론, 즉 공동체 아카이브와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 사건 아카이브가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이는 한 시대, 한 지역을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록물을 남긴 주체, 즉 인물에 대해 조망하는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으로,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지역 주민을, 사건 아카이브는 사건을 일으킨 행위자와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이를 관찰하는 관찰자로 조망함으로써 세 방법론 모두 인물을 중요한 요소로 상정한다.

사건 아카이브가 공동체 아카이브나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과 다른 특징은 각 방법론이 중요시하는 요소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공동체 아카이브와 사건 아카이브를 비교해보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기록을 다방면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건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거시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Korea Queer Archive, www.queerarchive.org)’은 성소수자에 관한 서지류, 영상류, 박물관류, 사진류 등 다양한 기록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동체 아카이브로 현재 온라인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와 관련된 사건, 즉 2016년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 클럽 펄스(Pulse)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이나 2016년 8월 16일 서울에서 일어난 성소수자 폭행사건에 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특히 반성소수자의 의견이나 공동체 간 증폭된 갈등을 파악할 자료를 제공하기보다 성소수 공동체의 의견만 제공하고 있어 당시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에 사건 아카이브는 사건과 관련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수집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공동체 외부의 기록까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어 공동체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난 당시 사회의 맥락을 함께 파악할 수 있으며 수집전략을 폭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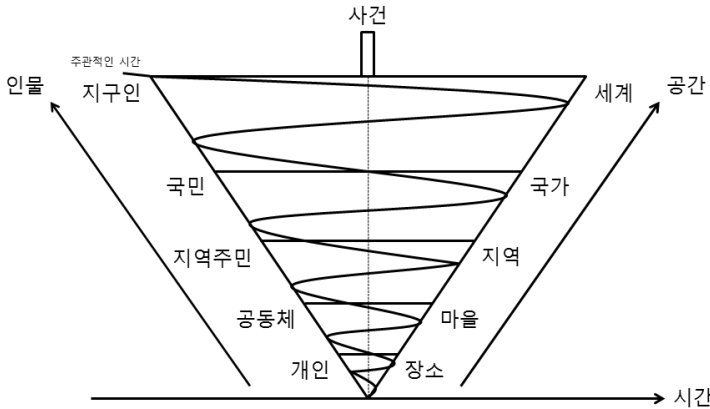
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 방법과 사건 아카이브를 비교하면,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에서 시간은 지역 공간의 이야기를 형성하도록 축적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사건 아카이브는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시간의 변화성을 보다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공간성 측면에서도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은 해당 지역의 공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바깥의 기록을 수집·관리하기 어려운데 비해 사건 아카이브는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시간성은 안산의 지역성을 연구하기 위해 1960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안산시의 변화상을 파악한 것으로 분절적이며 지리적으로도 안산지역에 한정되어 기록을 수집하기 때문에 안산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기록 중 일부 자료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이 포함될 뿐 전국 분향소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국민이 생산한 리본 및 방명록 등 다양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사건 아카이브는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 이정표가 되는 여러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중심으로 시기를 나누어 변화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연속적이며 사건과 관련된 지역은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한계성이 적어 공동체 아카이브나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보다 넓은 수집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사건 발생으로 인한 국내·외 사회의 맥락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사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인물, 공간, 시간의 세 요소는 복잡한 모양인 팽이와 같은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물과 공간은 각각 사건을 축으로 하는 팽이의 경사면을 이루어 시간의 흐름 위를 돈다. 절대적인 시간 위에서 팽이가 사건을 축으로 도는 순간, 시간은 가장 아래인 지역하위공간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인물과 공간을 나선으로 감아 올라간다. 시간이 팽이에 올라간 순간 절대적인 시간은 해당 사건의 인물과 장소에 따른 상대적인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정리하면 사건은

절대적인 시간을 분절하여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시간을 제공하며, 이 시간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 장소에 따라 점차 확장하며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사건 아카이브 요소의 구성도 : 팽이 모형



예를 들면,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발발 이후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건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상대적인 시간으로 흘러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록의 생산 및 수집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된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차 피해자 공동체에서 확장되어 주변 인물과 공간에 영향을 끼친다. 이제 세월호 사건은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에 상주하는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언론이 모여 관련 인물과 공간을 구성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각지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수많은 국민이 조의를 표하며 여러 기록물을 생산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공간이 확장되었다. 또한 해외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되어 이와 관련된 외국인의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2015년 6월 1일 양쯔강에서 침몰한 중국 여객선 동팡즈싱호(東方之星號)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으로 중국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세월호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이처럼 사건은 절대적인 시간 위에 있던 인물과 공간을 상대적인 시간으로 하나로 엮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장하며 융합되는 성격을 띤다.

3)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사항

아키비스트가 사건 아카이브를 구축함에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사건 발생 시기에 따라 구분한 역사적 사건과 동시대 사건은 각각 사건 아카이브 구축 방법이 상이하다. 이미 종결된 역사적 사건은 기존의 기록화 방법으로 수집한 기록에 더하여 사건 아카이브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재수집한 후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건 종결 후 기록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추가적인 기록도 사건 당사자보다 관찰자가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된 기록이 사건에 따라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수집방안을 마련한 후 관리 및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동시대 사건은 사건 당사자를 중심으로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사용하여 사라지는 기억을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건 아카이브를 다루는 기록관은 해당 사건에 따라 기관 사명문을 작성하여 재수집, 관리 및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기록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수집 및 기록화 범주 및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인물, 공간, 시간의 세 분류에 따라 발생하는 27가지 기록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현재 수집이 부족한 대상을 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기록 매트릭스를 통해 현재 사건 아카이브가 어떤 기록을 수집·정리하였는지 누락된 부분은 어디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수집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기록 매트릭스를 작성함에 있어 이 표의 모든 부분이 공평하게 일정한 수량과 매체로 채워짐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물 수집과 관련해 중요한 행위자가 중요한 시점에서 생산한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하며 이러한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수집정책에 반영한다. 그러나 사건 아카이브는 이 매트릭스를 통해 아키비스트가 기록이 부족한 부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미처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기록을 수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표 3〉 사건 아카이브의 기록 매트릭스 예시

행위자	사건 발생 전	사건 발생 시점	사건 발생 후
지역 하위공간			
지역 공간			
지역 상위 공간			
피해자	사건 발생 전	사건 발생 시점	사건 발생 후
지역 하위공간			
지역 공간			
지역 상위 공간			
관찰자	사건 발생 전	사건 발생 시점	사건 발생 후
지역 하위공간			
지역 공간			
지역 상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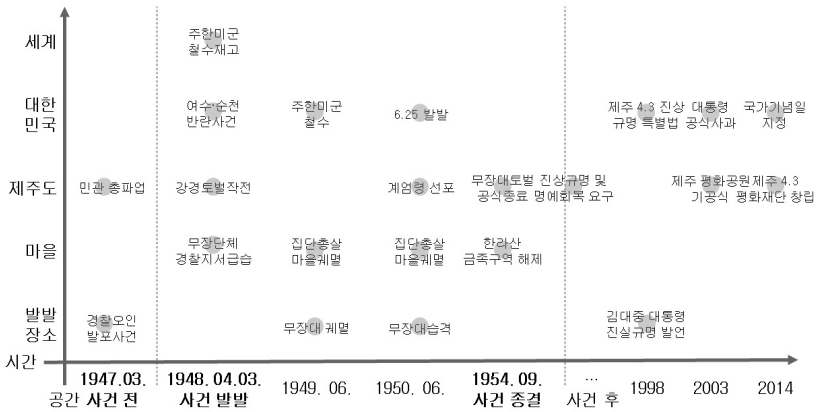
둘째, 인물 요소와 관련해 아키비스트는 자신을 드러내 기술함으로써 기록을 접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윤은하는 공동체와 아키비스트는 태생적으로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 이용자에게 기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누가 아키비스트이며,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기술하였는지 드러내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윤은하 2016, 131-159). 사건 아카이브

도 사건을 일으킨 개인 및 공동체와 사건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공동체, 제 3자인 아키비스트 모두 문화적 층위가 각기 다르다. 따라서 사건 아카이브에서 아키비스트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은 기록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사건 아카이브를 수집, 관리, 기술한 아키비스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세월호 기록을 416기억저장소 소속 아키비스트가 수집했다면 자신의 소속과 이름, 수집연월, 기록을 수집하게 된 경위 등을 기록 메타데이터에 함께 표기하여 이 기록이 어느 기준으로 수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요소와 관련해 아키비스트는 지역하위공간에서 지역상위공간에 이르는 모든 공간에 분포한 기록을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의 기록을 수집하는 아키비스트는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 나아가 해외 외신의 기록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록을 수집하기 때문에 자칫 대량의 기록을 수집·관리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장된 공간에서 기록을 수집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시간요소와 관련해 아키비스트는 모든 시간에 분포한 기록을 수집·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각 시간의 단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기록의 유무 및 분포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3>은 제주 4·3 사건을 사건 아카이브의 요소에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은 지역을 표시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 그림을 토대로 아키비스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발발 장소에서 벗어나 점차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제주 4·3 사건 아카이브에 1948년 4월 3일 이전 경찰 오인 발포사건이나 민관 총파업과 같은 제주 4·3 사건의 단초가 된 사건의 기록을 함께 수집할 수 있어 사건의 맥락화가 용이해진다.

〈그림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 제주 4·3 사건



셋째, 사건 아카이브는 그동안 일반 아카이브가 지향해왔던 기록의 관리·보존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사건 관련 공동체 간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픈 아카이브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물자료 수집에 더하여 수집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해야 한다(김화경 2012, 147-148). 사건 아카이브를 관련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금전적 문제나 커뮤니티 문제, 기록의 수집 문제, 홍보 부족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업하여 사건에 관한 고유한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보장하고, 사건 관련 기록의 지속적인 수집 및 관련자의 자발적인 기록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연계하는 오픈 아카이브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은 사건과 관련해 기존에 소외된 다양한 집단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TNA의 Moving Here Project¹⁾가 있다. TNA는 이민사 기

록을 수집·관리하던 여러 민간 기록관과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각 기관이 소장·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였다. 또한 각 기록관이 사회통합, 공동체 발전, 기술 개발, 역사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기관 주도의 TNA-소수 민족 공동체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TNA는 기관 중심의 수집 방식에서 벗어나 전시회나 이벤트, 이민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이야기를 작성해 Moving Here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쌍방향 수집 방식 등 이민자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오픈 아카이브로 발전하였다(최재희 2013, 121-152). 더불어 지역 주민과 공동체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자생하는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 공동체 기록물이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수집되고, 수집된 컬렉션의 이용도 공동체 구성원이 통제권을 행사한다(이경래, 이광석 2013, 36).

사건 아카이브도 이처럼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과 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의 수집·관리에는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기록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맥락 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진다.

정리하면, 사건 아카이브를 위해 행위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별된 사건을 대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종류에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는 맥락에 맞는 기록을 객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사건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오픈 아카이브 형태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아카이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이 프로젝트는 1800년대부터 영국으로 이주한 공동체 중 4개의 공동체(동유럽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 출신, 카리브 출신, 남부 아시아 출신)의 이민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출처 중심의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소홀히 되어 온 주제 중심의 민간 기록물을 기존의 공동체, 지역 중심 외에 사건을 중심으로 한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건 아카이브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에 있어서 사건은 중요한 주제이나 선행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차후 사건 아카이브의 기초연구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모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시한 모델을 실제 아카이브에 적용·구현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이모형에 따르면, 사건 아카이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전 시대·전 세계가 포함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기록의 수집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의도였으며 차후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함으로써 사건 아카이브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의 화두인 기록과 기억을 사건과 대입시켜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둘째, 출처 중심의 관리 위주 기록관리를 벗어나 사건이라는 주제의 맥락화를 토대로 기록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출처 중심 기록관리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과 기록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록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건 아카이브는 사건 관련 기록의 수집·관리·이용뿐만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여 기록이 지닌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서 민간 기록물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주연, 노형관, 남연화, 김용. 2015.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9-54.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권명숙. 2007. 『구술기록의 수집 절차에 관한 연구-민간인학살사건 다큐멘테이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 전공.
- 김영, 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 765kV 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01-151.
- 김유승, 류반디. 2015. 노근리사건 다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 김익한. 2014. '세월호 기억 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107, 12-24.
- 김지현. 2014.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05-126.
- 김진성. 2015.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사회적 역할. 『기록학연구』, 44, 199-215.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박규택. 2009. 로컬의 공간성 이해를 위한 이론적 틀: 사회·역사 구성주의 관점. 『한국민족문화』, 33, 159-183.
- 박규택, 이상률. 1999. 공간, 시간, 사회/자연의 상호관계성에 의한 지역이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5-27.
- 박지애, 임진희. 2015. 디지털기록유산 평가·수집 모형에 대한 연구: 캐나다 'Whole-of-Society 접근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51-99.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87-326.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4.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7-36.
- 손동유, 이경준. 2013.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161-206.
- 심성보. 2014. 4.16 세월호 참사 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7, 14-26.

-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217-241.
- 오명진. 2012. 공공영역의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기록. 『기록학연구』, 32, 45-78.
- 윤은하. 2011.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7-94.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윤은하. 2016.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기록학연구』, 47, 131-159.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건. 1994.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Data Analysis)의 개요: 와이불(Weibull)모형을 중심으로. 『동국사회연구』, 3, 139-157.
- 이경래. 2013.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8, 225-264.
- 이경래, 이광석.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3-39.
- 이미영. 2009. 재해 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한신, 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1, 85-116.
- 이영남. 2014. 기록의 전화: <포스트 1999>를 전망하며(2). 『기록학연구』, 40, 225-277.
- 이정우. 2011.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 서울: (주)그린비출판사.
- 이주영. 2011. 구술기록을 통한 민간인학살사건의 역사화. 『기록학연구』, 29, 79-127.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차철욱. 2015. 로컬시간을 고민한다. 『로컬리티의 인문학』, 42, 6-7.
- 채오병. 2009. 사건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사회와 역사』, 83, 157-185.
- 최재희. 2013. 영국의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 『기록학연구』, 36, 121-152.
- Cook, T. 2004.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5(1), 5-18.
- Cox, R. J.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London: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sias, A. 2011. Toward an Understanding of Archives as a Feature of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11, 95-112.

- Leitner, H., Sheppard, E. & Sziarto, K. M. 2008. The Spatialities of Contentious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2), 157-172.
- Sewell, W. Jr. 1996.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ful Sociology. in McDonald, T. (Eds.), *The Historic Turn in the Human Sciences* (pp.245-28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Trubowitz, P. 1998. *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Conflict and Chan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